

형식동사 ‘이다’의 문법*

김 의 수
(고려대학교)

Kim, Ui-Su. (2002). The syntax of a dummy verb *ida* in Korean. *Language Research* 38(3), 879-905.

In this paper, I argue about the so-called Korean copula *ida*; firstly, it is neither a substantial verb nor an affix, but just a dummy verb which supports sentential modals as like *do*-support in English. Predication relationship in *ida* constructions is formed between Noun Phrases which constitute Small Clauses. Secondly, such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of *ida* yield morphological and phonological dependency(i.e. palatalization) of it. Thirdly, *anida* that is the negation of *ida* can be analyzed to two parts in syntactic level: the negation adverb *ani* and the dummy verb *ida*. This explains why *anida* can license Negative polarity items.

Key words: copula, dummy verbs, syntactic words, semantic words, phonological words

1. 문제 제기

본고는 ‘이다’ 구문에 관하여, ‘이다’가 실질용언이나 접사가 아닌 형식동사(dummy verb))로서 문장의 서술양식 구현을 위해 쓰이는 것일 뿐이라는 점과, 그러한 ‘이다’의 통사·의미적 특성이 ‘이다’의 형태·음운적 의존성을 유발한다는 점, 그리고 ‘아니다’의 ‘아니’는 적어도 현대국어에서는 부사이며 ‘이다’와 결합하여 통사적 부정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다’와 관련하여 그동안 주목을 받아 왔던 예들은 다음과 같다.

(0) NP1 - NP2 - 이다²⁾

* 본고는 제34회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어학연구회(2000.12.1)에서 발표한 것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발표문은 선행 연구 검토 부분과 필자의 새로운 주장을 논의한 부분으로 양분된다. 선행 연구 검토 부분은 이미 따로 떼어 김의수(2000b)로 기고한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 나머자인 필자의 핵심 주장만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김의수(2000b)의 속편에 해당한다.

- 1) 이때 ‘동사’는 국어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용언’이라는 말과 같다. 따라서 ‘형식동사’를 ‘형식용언’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용언’ 대신 ‘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동사’는 ‘동작동사’로, ‘형용사’는 ‘상태동사’로 바꿔 부른다.
- 2) 이것은 본고에서 ‘이다’ 구문의 요소들을 가리키기 위한 편의상의 도식에 불과하다. NP는 둘 이상일

- (1) a. 학이 두루미이다.
b. 철수가 착한 학생이다.
c. 철수가 매우 부자이다.
- (2) a. 돌이는 정구숨씨가 세계적이다.
b. 방안이 엉망이다.
- (3) a. 나는 짜장면이다.
b. 순이는 부산이다.
- (4) a. 영자가 갈 {것, 뿐, 따름, 터}이다.
b. 그 작살은 내일 고래를 잡을 때 쓸 것이다.
- (5) a.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
b. 그 방은 엉망이 아니다.
- (6) a. *철수는 학생이지 않다.
b. 그 방은 엉망이지 않다.

(1)은 가장 많은 주목을 끈 유형으로서 NP1과 NP2가 동일관계(1a)이거나 포함관계(1b,c)이다.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NP끼리 주술관계를 형성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모두 '이다'의 논항인가 하는 점. 둘째, '이다'의 '이'가 접사인가 아니면 용언의 어간인가 하는 점. 서로 맞물려 있는 이 문제들로부터 도출 가능한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다³⁾: i) '이'는 용언 어간이며 의미역을 배당한다(용언설 I: 실질동사설). ii) '이다'는 용언 어간이지만 의미역을 배당하지 않는다(용언설 II: 형식동사설). iii) '이다'의 '이'는 접사로서 의미역을 배당한다(접사설 I). iv) '이다'의 '이'는 접사이긴 하나 의미역을 배당하지 않는다(접사설 II). 접사설 II는 다시 iv-1) '파생접사설'과 iv-2) '굴절접사설'로 나뉜다.

(2)는 '의' 명사구와 '속성적 명사'⁴⁾가 NP2로 나타나는 구문인데, 특히 심리형용사 구문과의 유연성이 포착된다. 이와 관련하여 (2)를 (1)과 동류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1)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술관계 설정이 난제이다.

수 있다(그 집은 방안이 엉망이다). 그리고 '이다'의 '이' 역시 각각의 주장에 따라 그 표기가 달라져야 하겠지만, 편의상 모두 '이다' 혹은 '이'로 나타내겠다.

3) 이 외에도 여러 입장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현재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용언설과 접사설만을 다루고자 한다. 이 밖의 선행 연구들에 관해서는 고창수(1985)와 김민수(1994), 이광정(1994), 양정석(2001)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이 용어는 양정석(1986)에서 보이는데, 본고에서도 이를 취하고자 한다.

(3)은 NP1과 NP2가 뚜렷한 주술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아 (1), (2)와 구별된다. 여기서는 특히 구문 분석과 의미 해석에 있어 문맥 정보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구문 분석과, 그러한 분석이 행해지는 문법 영역의 문제가 핵심 논제이다.

(4a)는 의존명사가 있는 '이다' 구문인데, 주술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3)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다' 앞에 명사구가 아닌 절을 취한 의존명사만이 단독으로 놓인다는 점에서 (1~3)의 구문과는 또 다르다. 그리고 (4b)는 (4a)와 마찬가지로 의존명사가 쓰였지만 통사적 특성이 달라 일률적인 처리를 어렵게 만든다.

(5~6)은 '이다'의 부정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아니다'에서 '아니'를 분석해 낼 것인가, 만일 분석한다면 '아니'는 '명사'인가 '부사'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아니'를 분석하는 입장을 택한다고 했을 때 '이다' 구문은 왜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에서 일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상으로 '이다' 구문의 주된 예들과 쟁점들을 살펴보았다.⁵⁾ 필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할 것이다: 첫째, '이다'는 실질용언이나 접사가 아니라, 다만 문장의 서술양식 구현을 위해 동원된 형식동사(dummy verb)일 뿐이며 이 점은 (1~6)에서 동일하다. 둘째, 그러한 '이다'의 통사·의미론적 특성이 '이다'의 형태·음운론적 의존성을 유발하여 구개음화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 초래된다. 셋째, '아니다'의 '아니'는 적어도 현대국어에서만은 부사로서 '이다'와 결합하여 통사적 부정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다' 구문에서 보이는 장형 부정 제약은 '아니다'의 어휘적 속성에 기인한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전제를 간략히 언급하고, 3장에서는 형식동사 '이다'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이'의 형태·음운적 특성을 살피는 가운데, 삭제나 생략이 접사철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구개음화 현상은 분명 '이'의 형태음운론적 의존성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의존성은 형식동사 '이'의 의미론적 의존성에 기인한 현상에 불과함을 주장한다. 5장에서는 이상의 '이다' 논의를 바탕으로 '이다'의 부정 문제를 살펴본다. 6장에서는 본문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서술한다.

2. 논의의 전제

2.1. 선행 연구 검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몇 가지 언급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와 '이다'에 관한 필자의 기본 입장 표명이 그것이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는 이미 김의수(2000b)와 김의수(2002c)에서 상론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

5) (1~6) 이외의 '이다' 구문이 더 거론될 수 있다. 예컨대, '내 마음은 호수다'라는 예. 그러나 이러한 은유 문장은 통사적인 설명보다 의미·화용론적인 해명을 더 기대하는 것이므로 '이다'에 관한 문법론적 접근 태도를 가지는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에서는 그 검토 대상과 필자의 입장만을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이’의 범주 설정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쟁점에는 ‘이’의 의미역 할당 여부와 ‘이’ 선행 NP2의 격 배당 여부이다.

(7) ‘이’가 의미역 할당 능력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 엄정호(1993), 강명윤(1995), 시정곤(1993, 1995), 이남순(1985, 1999), 양정석(1986, 1996a,b)

(8) ‘이’ 선행 NP2에 격이 할당된다고 보는 견해: 성광수(1976), 이남순(1985, 1999), 엄정호(1989, 1993), 강명윤(1995)

필자는 김의수(2000b)에서 (7)과 (8)에 언급된 개별 논문들의 논거 하나하나를 살핀 결과 ‘이’가 의미역 할당을 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나 NP2에 격이 부여된다는 논거 모두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곧 ‘이’가 실질동사가 아님을 의미한다. 즉, 국어는 아래 (9)와 같이 대격을 배당하지 못하는 2항의 비대격 동사(unaccusative verb)의 경우이라도 그것의 논항(특히 보충어)에 주격이 부여되는 것을 허락한다.

- (9) a. *나는 영화를 좋다.
b. 나는 영화가 좋다.

이는 곧, 국어에서 어떤 것이 실질동사라면 그것이 의미역 배당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어에도 격이 허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가 의미역 할당 능력을 가지지 않으며 그 선행 NP2에 격이 부여된다는 증거도 없다면, 결국 ‘이’를 실질동사로 볼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가능성 두 가지는 ‘이’를 접사로 보거나, 아니면 형식동사로 보거나 하는 것이다. 먼저 접사설은 아래와 같이 다시 파생접사설과 굴절접사설로 나뉜다.

(10) 파생접사설: 고창수(1985, 1992), 시정곤(1993, 1994, 1995), 고창수·김원경(1998), 안명철(1995)

(11) 굴절접사설(주격조사설): 우순조(2000, 2001), 최기용(1993, 2001)

(10)은 ‘이’를 다시 통사적 접사와 어휘적 접사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필자는 이들 주장 역시 별로 타당성이 없음을 김의수(2000b)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1)은 특이하게도 ‘이’를 주격조사라고 주장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어미란 용언 어간 뒤가 아니라 서술어 뒤에 온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필자가 김의수(2002c)에서 이미 상론하였듯이 이러한 가정은 국어의 어미 일반론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들며 그 주장의 세부 논거들도 상호 모순되거나 그 타당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가능성 하나는 '이다'를 형식동사로 간주하는 것인데,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접사설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다음과 같은 '反동사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⁶⁾

- (12) a. 선행 명사에 가시적인 격을 배당할 수 없다.
- b. 선행요소와 결합하여 항상 단어 경계 내부에 속하는 것처럼 활동한다.
- c. 동사라면 상정되어야 할 선행체언의 자릿수에 대한 과도한 설명
- d. 특수조사도 '이'에 선행되기 힘들다.
- e. 독립된 통사 단위가 아니다.

(12a)는 일단 올바른 진술이지만 그것은 '이다'를 논항구조를 가진 실질동사로 볼 때에나 문제가 된다. (12b) 역시 실질동사를 겨냥한 지적이다. '이'를 통사적 접사로 간주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이'의 접사성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라 단정하지만, 좀더 정밀한 연구를 통해 그러한 현상이 다른 원인으로부터 도출된 부수 현상임을 밝힌다면 그것은 '이다'의 문법에 관한 더욱 깊이 있는 해명이 될 것이다.⁷⁾ (12c)는 '이'가 의미역 할당 능력이 있는 실질동사로 간주할 때에만 문제가 된다. (12d)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진술이다. (12e)는 '이'를 용언 어간으로 보는 것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근원적인 문제 제기처럼 보이지만 역시 그 논거가 타당하지 않다.⁸⁾ 결국, 反동사설도 수긍하기 힘들다.

2.2. 형식동사로서의 '이다'

이제 이상의 논의로부터 얻은 결론을 정리해 보자.

- (13) a. '이'는 실질동사가 아니다.
- b. '이'는 접사가 아니다.
- c. '이'가 동사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실질동사도 아니고 접사도 아니라면, 그리고 '이'가 여전히 동사의 하나라면 남아 있는 가능성 한 가지는 바로 '이다'를 형식동사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다'의 범주를 형식동사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행 연구 가운데 성광수(1976), 김광해(1983), 이현희(1994), 濱之上 幸(1994) 등

6) (12a,b)는 고창수·김원경(1998)이, (12c)는 고창수(1992)가, (12d,e)는 안명철(1995)이 제시하였다.

7) 4장에서 보이겠지만 (12b)는 '이다'의 의미적 특성에 기인한 부수적 현상일 뿐이다.

8) 안명철(1995, pp. 35-36)은 이와 관련된 증거로 '성분 생략의 불가능성>(*철수가 이다, *이다)과 '대형식'으로의 대체불가능성(*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 그랬다)을 들고 있으나, 김의수(2000b, pp. 683-684)에서는 이러한 논거는 타당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은 ‘이다’가 의미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⁹⁾ 다만 “어미류를 통합시킬 수 있는 몸체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현희, 1994, p. 94)”이거나 혹은 “단지 文構成을 위한 ‘名目上’의 存在일 뿐이며, 時制, 敍法, 相 등을 表示해 주기 위한 ‘場所’로서의 기능을 주된 目的으로 하고 있는 것(김광해, 1983, p. 4)”이라고 보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 필자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이다’를 ‘계사’라는 범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견을 달리 한다.

이미 여러 논의에서 수차례 지적해 온 바대로, ‘계사’의 본령이 ‘A=B’라는 관념 자체나 그 관념의 표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다’의 쓰임 가운데 매우 협소한 부분만을 포착해 줄 뿐이다. 임흥빈·장소원(1995, p. 233)도 ‘계사’란 편의적인 명칭일 뿐, ‘이다’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지는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다’의 활용을 근거로 그것을 ‘형용사’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다’는 그것이 취하는 선행 명사구의 어휘적 속성에 따라 그것이 형용사의 일반적 행태와 일치하기도 하고 일치하지 않기도 하다는 점에 유의하자. 이는 곧 ‘이다’ 자체를 형용사라는 실질 범주로 분류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 (14) a. 그녀는 공포에 떨어 얼굴이 창백하게 되었다.
 b. *그 여자가 상냥한 사람이게 되었다.
 c. 아이들이 뛰고 뒹구니 내 방이 영맛이게 되었다.
- (15) a. 그녀는 얼굴이 예쁘지 않다.
 b. *이것은 책이지 않다.
 c. 영화는 미인이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다.

일반 형용사는 (14a)처럼 ‘게 되다’ 구문과 (15a)에서와 같이 ‘-지 아니하다’를 통한 장형부정이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이다’ 구문에서는 선행 명사가 ‘속성적 명사’일 경우는 (14c)와 (15c)에서 보이듯이 그것이 모두 가능하지만, 비속성적 명사일 경우엔 (14b)와 (15b)에서와 같이 그것이 모두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형용사라고 일관성 있게 기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이다’를 ‘이다1/이다2’로 구별하거나 ‘통사적 접사’와 ‘어휘적 접사’로 나누어 기술해 보려는 시도가 마련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심본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김의수(2000b)에서 살펴보았듯이 문제가 많아 받아들이기 힘들다.

결국 이상의 논의가 말해 주는 바는, ‘이’가 실질적인 의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선행 명사구에 의해 범주 속성이 좌우되며(따라서 ‘형용사(상태동사)’라고 못박아 말할 수 없고 그 자체로서는 범주 중립적인 용언인 것이다), 문장의 서술양식¹¹⁾의

9) Lyons(1977, p. 437) 역시 영어의 be를 동사로 보는 이유는 인칭, 시제, 수와 같은 형태론 및 통사론적 특성에 의한 것이지 의미론적인 특성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라고 했다.

10) 그렇다고 ‘이다’가 ‘동작동사’일 수는 더더욱 없다.

구현을 위해서만 동원되는 용언의 한 종류라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가 형식동사(dummy verb) 혹은 형식용언의 하나라고 주장한다.¹²⁾

이러한 '이다'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경동사 '하다'와 비견될 만하다: 첫째로 실질적/어휘적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둘째로 선행 NP의 속성에 따라 그 범주적 속성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셋째로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넷째로 이러한 결과 문장의 서술양식을 실현시키기 위해 쓰인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 (16) a. 우리 이제 수학을 공부하자!
 b. *우리 이제 건강하자!
- (17) a.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했다.
 b.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

(16)과 (17)은 경동사 '하다' 구문¹³⁾의 특성을 보인다. (16)은 '하' 역시 선행 명사구의 속성에 따라 어미 활용이 달라진다(즉, 범주적 속성이 가변적 혹은 중립적이라는 것을), (17)은 선행하는 (서술성) 명사만으로 명제의 의미 구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도 이와 마찬가지로 특성을 지녔다는 것은 앞서 논의된 바 그대로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다'와 '하다'가 공통 분모를 가지며 형식동사 혹은 기능동사라는 범주를 이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가정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다'는 결코 문법의 체계 내에서도 소외됨 없이 용언의 한 부류를 구성하는 원소로서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¹⁴⁾

3. '이다'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성

3.1. '이다' 구문의 구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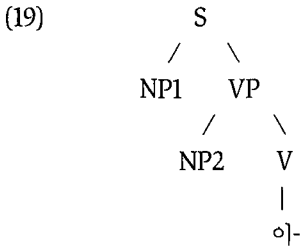
본절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형식동사 '이다' 구문의 구조 기술을 시

- 11) 김민수(1983, pp. 131-132)는, 문장은 언어행위의 기본 단위로서 단순한 단어나 단어 결합이 아니라 반드시 서술작용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때 '서술작용'이라 함은 곧 서술내용(명제)과 서술양식(시칭, 서법, 법성, 겸칭 등)을 결합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 12) 목정수(1998, p. 285)는 '이'를 기능동사로 불렀지만 동시에 '이'를 "두자리 술어"로 설정한 점에서 본고의 입장과 구별된다. 필자는 '하'를 논의하는 자리(김의수, pp. 1998; 1999c)에서 '하'는 기능동사이며 기능동사는 의미역 할당 능력과 격 할당 능력이 없다고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목정수(1998)와 본고는 기능동사의 개념 설정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13) 이때의 '하'는 접사나 중동사(heavy verb)가 아니다. 김의수(1998, 1999c)를 참조하기 바란다.
- 14) 고창수·김원경(1998)은 '이다'를 용언으로 보았을 때 무엇보다 동사의 체계 내에서 그것이 고립된다는 것이 큰 단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만일 우리의 주장이 옳다면 이러한 비판은 극복될 수 있다.

도하고자 한다. 먼저 그 지침이 될 만한 것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 (18) a. '이다' 구문에서의 주술관계에 대한 올바른 기술
 b. NP2에 항구적으로 격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명시
 c. 'NP2+이다'가 대응형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 명시
 d. '이다'의 의미적인 속성(실질의미와 논항구조 결여)에 대한 올바른 기술
 e. '이다'의 기능적인 속성(서술양식 구현)에 대한 올바른 기술

(18a)는 '이다' 구문에서의 주술관계가 '이-'를 배제한 명사구들 간의 관계에서 포착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것은 (18d)와 상통한다. (18b)는, 격을 받지 못한 NP일지라도 국어에서는 그것을 구체해 주는 수단이 존재한다는¹⁵⁾ 격 일반론에 비추어 볼 때, '이다' 구문에서 발견되는 특이성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특성에 대한 설명 또한 특별한 가정 없이 (18) 전체를 만족시키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18c)는 엄정호(1989, pp. 122-123)가 지적한 것으로서, 사실상 '이다' 구문이 (19)의 구조를 취한다고 믿도록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 (20) a. 철수가 천재이다.
 b. 철수가 그렇다.
 -엄정호(1989, p. 123)

즉, (20b)처럼 'NP2+이-'가 대응형으로 대치될 수 있으므로 그것을 명시해 주기 위해 (19)와 같이 그 둘이 기저에서 단일구성 성분이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적어도 두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19)는 (18a)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 즉, (19)를 가지고서는 NP1과 NP2가 주술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명시해 줄 수 없다. 둘째, 어떤 두 요소가 대응형으로 대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둘이 기저에서부터 단일구성 성분이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즉, 다음 (22b)는 기저에서 단일 구성 성분을 이루지 않는 두 요소가 대형식으로 대치

15) 예컨대 격을 받지 못하는 NP에게 Default Case로서 '주격'이 부여된다는지(강명윤, 1992:무정격), '대격'이 부여된다는지(김의수, 1998, 1999c:자립격)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하여 김의수(2002b) 참조.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20)과 같은 현상 때문에 필연적으로 (19)와 같은 기저 구조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해 준다.

- (21) a. 철수가 영화를 아내{로/를} 삼았다.
 b. 철수가 영화를 바보{로/를} 만들었다.
 c. 철수가 황무지를 옥토{로/를} 바꾸었다.
 d. 우리는 철수를 반장{로/를} 뽑았다.
 -김귀화(1994, pp. 86-87, p. 91)

- (22) a. ... [v [s [NP영화들] [PP/NP아내{로/를}]]s V] ... -김귀화(1994:92)
 b. 철수는 영화를 아내로 삼았고, 영수는 순이를 그렸다.

(21)의 문장들은 동사가 소위 소절(SC: Small Clause)을 목적어로 취하는 구문으로 생각되는 예이다. 즉, (21)에서 '영화—아내, 영화—바보, 황무지—옥토, 철수—반장'은 모두 주술관계에 놓여 있다. 김귀화(1994, p. 92)는 이러한 주술관계를 (22a)와 같은 소절 구성을 통해 포착해 주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모문의 동사와 소절의 술어 명사구 즉, (21a)에서의 '아내{로/를}'과 '삼-'이 하나의 구성성분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도 (22b)에서 보이듯 그 둘만을 대형식으로 대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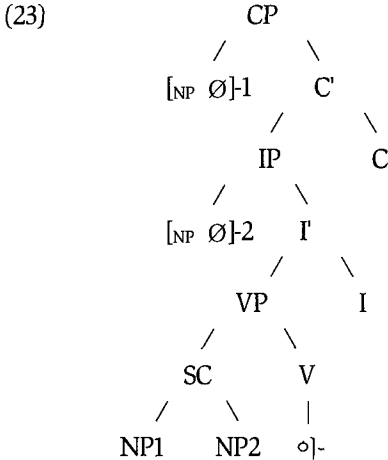
Stowell(1991, p. 185)은 동사가 소절을 취할 경우(즉, I consider [sc John foolish]) 소절의 술어는 LF에서 모문의 동사로 이동해야 한다(...[vp [v consider-foolish] [sc John e]...)고 제안하였으며, 이를 'LF 재구조화(restructuring)'라 불렀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22a)에서 '아내{로/를}'은 LF에서 '삼-'과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성분을 이룬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대형식으로 함께 대치되는 것이 허가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¹⁶⁾

이와 같은 생각을 국어의 '이다' 구문에 적용시킨 연구는 강명윤(1995)이다. 그는 '이다' 구문에서 '이-'를 선행하는 두 NP가 하나의 소절을 이루고, 그것을 '이-'가 보어로 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기본적으로 (18a,c)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주장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그는 (i) '이-'가 의미역을 부여하고, (ii) 그러한 전제 아래 소절 내부의 두 명사구가 무정격(Default Case)을 할당받는다고 하였다. (i)은 (18d)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i)이 올바른 진술이 아니라면 (ii) 역시 타당한 진술일 수 없다. 그의 '무정격'은 명사구가 의미역을 부여하는 서술어에 지배되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16) 이상의 논의로부터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대형식으로서의 대치 가능성은 그것의 적용을 받는 대상들이 하나의 구성성분일 것을 요구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기저에서부터 그러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엄정호(1989)의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많다.

왜 ‘이다’ 구문에서 부정격으로서의 주격은 항상 외현적인 격표지로 실현될 수 없는가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 (18b)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강명윤(1995)의 소절¹⁷⁾ 분석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18)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먼저 필자가 가정하는 ‘이다’ 구문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¹⁸⁾



‘이다’ 구문의 주술관계는 소절 SC로 포착되고¹⁹⁾ ‘시제, 상, 서법’과 같은 서술양식은 기능범주 I와 C에 자리한다. NP(의 핵 N)가 직접 서술양식을 취할 수는 없으므로 형식동사 어간 ‘이-’가 그 사이를 매개하여 SC를 보어로 갖고 다시 자신의 투사인 VP는 기능범주 I의 보어가 되어 서술내용을 서술양식과 연계시킨다.²⁰⁾

한편, [NP Ø]-2’는, 비록 논항위치이지만 ‘이-’가 아무런 의미역 배당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저(D-구조)에서 비의미역 위치로 비어 있게 된다. 반면에 [NP Ø]-I’은 비의미역 위치일 뿐만 아니라 비논항 위치로서 주제어와 같은 비논항이 출현할 수 있는 위치이다.²¹⁾ 그 자리는 기저에서 채워질 수도 있고 도출의 과정(S-구조)에서

17) ‘소절’은, 의미상으로 절의 성격을 가졌으나 통사적으로 완전한 절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한 표현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Chomsky(1981)는 소절을 굴절소와 계사(be)가 없는 절 구조 혹은 굴절소가 표제가 아닌 절로 규정하고 있다. -김귀화(1994, p. 98) 참고.

18) 국어의 수형도를 그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주제어(Topic)를 허가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CP와 IP 사이에 MP를 설정할 것인가? 국어에 AGR을 따로 설정할 것인가?... 이렇듯 복잡한 문제가 매우 많지만, 본고의 논의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으므로 우리는 편의상 CP의 지정어에 주제어가 놓인다고 가정하고 곧바로 본문에 들어가겠다.

19) 이는 (18a,d)를 만족시킨다.

20) 이는 (18e)를 만족시킨다.

21) (비)논항 위치와 (비)의미역 위치에 관해서는 Haegeman(1994, pp. 663-669)를 참고하기 바란다.

채워질 수도 있다.

그럼 이와 같은 구조 기술이 '이다' 구문 전반을 어떻게 포착해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 (1) a. 학이 두루미이다.
 b. 철수가 착한 학생이다.
 c. 철수가 매우 부자이다.
- (2) a. 돌이는 정구 솜씨가 세계적이다.
 b. 방안이 엉망이다.

서두에서 보였던 (1)과 (2)는 전형적인 '이다' 구문으로서 그 주술관계는 '이'에 선행하는 명사구들 간에 맺어진다. 즉, (1)에서는 $[NP_1 \text{ 학}] - [NP_2 \text{ 두루미}]$, $[NP_1 \text{ 철수}] - [NP_2 \text{ 착한 학생}]$, $[NP_1 \text{ 철수}] - [NP_2 \text{ 매우 부자}]$ ²²⁾가, (2)에서는 $[NP_1 (\text{돌이})] - [NP_2 \text{ 정구 솜씨}]$ — $[NP_2 \text{ 세계적}]$ ²³⁾, $[NP_1 \text{ 방안}] - [NP_2 \text{ 엉망}]$ 이 주술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이들 NP1과 NP2의 쌍은 모두 (23)과 같은 구조에서 SC를 구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때 SC의 범주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이 NP1과 NP2로 구성된 이상 NP 이외의 다른 신분을 갖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 (23)에서 SC는 NP0인 것으로 간주하자. NP0가 그대로 NP2일 수는 없을 것이다. SC는 두 개의 NP로 구성된 제3의 NP로 보아야 한다.²⁴⁾

한편, (1)이나 (2)와 율를 달리하는 듯한 '이다' 구문이 보인다.

- (3) a. 나는 짜장면이다.
 b. 순이는 부산이다.

여기서는 $[\text{나}] - [\text{짜장면}]$ 이나 $[\text{순이}] - [\text{부산}]$ 이 주술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

22) 이때 '매우'가 '부자'를 수식하는 양상과 구조에 관해서는, 본고와는 세부적 입장에서 다르지만, 황화상(1996, pp. 78-80)을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

23) 이때 (2a)의 '돌이'를 주어로 취급하기 쉬운데, 그것은 "돌이의 정구 솜씨가 세계적이다"와 같은 기저 문장에서 '정구 솜씨'를 수식하던 성분이 주체화된 것이므로 기저에서 주어의 일부는 될지라도 주어 자체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그것은 S-구조에서 $[\text{SPEC}, \text{IP}]$ 가 아닌 $[\text{NP } \emptyset] - \text{I}'$ 에 위치하는 도출된 주제어(Topic)라 할 것이다.

24)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SC를 내심적인 구조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Chomsky(1981)과 Stowell(1981)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Kitagawa(1985) 등에 의해 제시된 다음과 같은 예로 인해 문제가 많음이 밝혀졌다.

(i) $[\text{How talented}]_i$ do you consider $[\alpha \text{ him } t_i]$

만일 α 를 내심적인 구조로 파악하여 'AP'인 것으로 간주하면, 'how talented'는 결코 의문사 이동을 겪을 수가 없게 된다. 이는 사실과 배치되는 설명이다.

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 둘이 전혀 관계지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의미 복원 과정을 거치면 다음과 같은 기저구조가 상정될 수 있다.²⁵⁾

- (24) a. [CP 나는 [IP ([NP pro_i 먹고 싶은 것)이] [좌장면]이다]
 b. [CP 순이는 [IP ([NP pro_i 사는 곳)이] [부산]이다].

(24)는 일종의 분열문(cleft sentence)으로서 이때 NP1에 해당하는 (3a)의 ‘나는’이나 (3b)의 ‘순이는’은 기저에서 ‘[NP Ø]-I’에 나타나는 주제어(Topic)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4)가 (3)으로 되는 과정이 순수 통사론의 영역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자. 즉, 문장 성분의 생략이 본질적으로 화맥 상에서 화자와 청자가 이미 공유한 지식을 잉여적인 것으로 처리하는 절차라면, (3)과 같은 문장은 이미 통사부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문장 (24)을 대상으로 하여 또 다른 담화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산출해 낸 결과물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화맥 상에서의 생략이 통사론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생략의 발단이나 원리가 어디까지나 화용론적인 것이라면 통사론은 (3)의 기저가 되는 (24)와 같은 문장을 올바르게 기술해 주는 것만으로 일단 만족해야 할 것 같다.²⁶⁾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4)가 전형적인 ‘이다’ 구문인 (1)이나 (2)와 그 기저에서는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23)과 같은 구조 기술은 ‘이다’ 구문에 대한 통사론적 기술을 간결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리고 그러한 유용성은 다음과 같은 예에 대해서도 발견된다.

예문 (4)는 (1)과 (2), 그리고 (3)과도 구별되는 유형이다.

- (4) a. 영자가 갈 {것, 뿐, 따름, 터}이다.
 b. 그 작살은 내일 고래를 잡을 때 쓸 것이다.

얼핏 보면 (4a)와 (4b)가 동일한 듯하지만, 그 둘은 조금 다르다.

(25) ... [VP [NP 영자가 갈 것] 이]다.

- (26) a. ... [NP_i 그 작살은]_i [NP pro_j [CP pro_j 내일 고래를 잡을] 때 t_i 쓸 것]이다.
 b. ... [VP [SC [NP_i 그 작살은]_i [NP₂ [pro_j [CP pro_j 내일 고래를 잡을] 때 t_i 쓸] 것]]]이다.

25) 물론 주어진 문맥 혹은 상황에 따라 복원 가능한 구문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여기서는 가능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문제 삼아 얘기하는 것이다.

26) 남기섬(1986) 역시 ‘이다’의 통사적 특질을 밝히는 가운데 이러한 구문을 ‘비분류문’으로 분류하며 이와 같은 유형의 쓰임은 일정한 조건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였다.

즉, (4a)는 (25)에서 보이듯 (23)에서 SC 대신에 그 위치에 하나의 NP만을 위치시켜야 하는 해석만을 가진다. 반면에 (4b)는 우선 (26a)의 경우 '-르 것'이 하나의 양태소처럼²⁷⁾ 쓰여 (25)와 마찬가지로의 구조 기술이 필요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26b)의 경우처럼 '-르'와 '것'이 독자적으로 기능하여 오히려 (1)이나 (2)와 같은 전형적인 '이다'문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중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5)와 (26a) 역시 (23)에서 본질상 NP인 SC의 라벨만을 다만 NP로 바꿈으로써 다른 '이다' 구문과 크게 다를 없이 기술해 줄 수 있다.²⁸⁾

결국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18)에 기반한 구조 기술 (23)만으로 '이다' 구문의 여러 유형을 효과적으로 기술해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의 격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3.2. '이다' 구문에서의 격 허가

- (27) Case Filter : *NP if NP has phonetic content and has no Case.
-Chomsky(1981, p. 49)²⁹⁾

우선 NP인 SC는 (27)과 같은 격 여파에 가지적이다. 따라서 그것은 격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해야 하는데, 적절한 후보지는 곧 [NP Ø]-2' 자리이다. 구조격이 S-구조에서 주어된다면 NP인 SC는 [SPEC, IP]에서 주격을 부여받을 것이고 SC가 받은 주격은 하위의 NP1과 NP2로 삼투될 것이다.³⁰⁾ 이러한 운용은 문법의 다른 원리를 어기지 않으므로 일단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도출의 결과는 (18b)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의 '의미론적인 속성'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고자 한다.

(18d)는 문법이 '이'가 실질의미와 논항구조를 결합하고 있음을 올바르게 기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이미 (23)의 구조에 투영되어 있다. 즉, '이다' 구문의 의미역 관계 혹은 주술관계를 SC로 포착해 줌으로써 '이'가 논항구조를 가지지 않는다는 속성을 이미 반영하였다. 그러나 아직 하나가 남아 있다. '이'가 '실질의미'조차 가지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27) 성기철(1979, p. 232)에서는 '-겠-파의' 대조를 통해서 '-르 것'이 상대적으로 먼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 추정'의 양태성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28) 즉, (4a)는 V인 '이'의 보충어 위치에 NP가 온다는 점에서 (1)·(2), (3)과 동일하며, 다만 그때의 NP가 주술관계를 이루는 두 개의 NP가 아닌, 단일한 N의 부사라는 점에서 이들과 차이가 날 뿐이다.

29) 격 여파가 가시성 조건으로 환원될 수 없음은 김의수(2002b)에서 논증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격 여파가 명사구들의 기본적인 준수 조건이라고 간주한다.

30) 이와 같은 설명은 영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i) I consider [_{SC} [NP John] [NP a fool]].

즉, 이 경우 소절을 이루고 있는 것은 두 개의 NP이며, 그들은 모두 (27)과 같은 격 여파에 가지적이지만 (i)은 정문이다. 따라서 이때의 NP들도 격을 모두 부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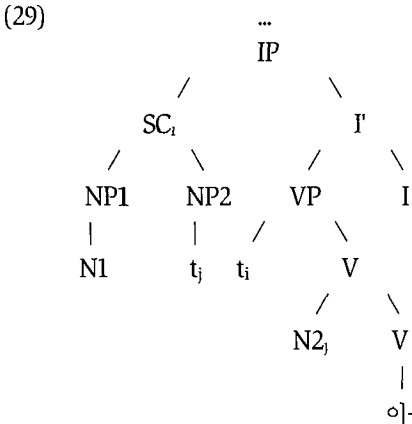
Lasnik(1993)은 다음과 같은 there-구문에서 α 가 there로 인상해야 하며, 그 이유는 there가 LF에서 완전해석원리(Full Interpretation)을 어기므로 그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28) There is [α a man] in the garden.

즉, there는 의미가 비어 있는, 말 그대로의 허사(expletive)이기 때문에 의미 해석부인 LF에서 부적법한 요소가 되므로 의미를 가진 그 무엇인가가 지지(support)해 주어야만 되므로 α 가 이동한다는 것이다. there가 의미해석부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그 무엇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Lasnik(1993)은 there를 LF-접사(LF-affix)라고 불렀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형식동사 ‘이-’가 영어의 there와 마찬가지로 LF에서 완전해석원리를 어길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³¹⁾ 따라서 그러한 것을 막으려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그 무엇인가가 늦어도 LF에서라도 ‘이-’를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좀전까지 우리는 SC가 [SPEC, IP]에서 주격을 받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두 NP가 격 여과를 모면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제 LF에서 ‘이-’가 자신을 지지해 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N2를 유인한다고 가정해 보자. 두 조각의 결과 다음과 같은 성분구조가 도출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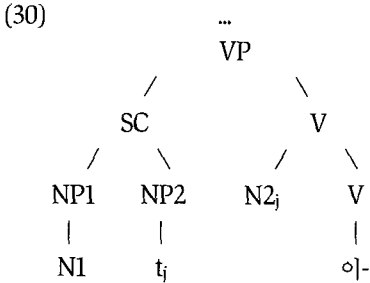


(29)와 같이 N2가 V로 핵 부가되면 일단 ‘이-’가 갖는 LF에서의 접사적 속성은 충족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N2가 자신의 흔적 t_i 를 성분통어하지 못하게 되어 결

31) 김의수(1998)에서는 경동사 ‘하’ 구문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로 짐을 논의한 바 있다.

국 공범주원리(ECP)가 위반된다. 따라서 (29)와 같은 도출(예컨대, (1a)의 경우라면 “학이 두루미가 이다”)은 허가될 수 없다.

반면, 도출의 초기에서 SC 전체가 [SPEC, IP]로 인상하지 않고 그 하위에 있는 NP2의 핵 N2가 ‘이’로 핵 이동해 가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N2가 외현적으로 ‘이’에 핵 이동해 가면 첫째, N2의 격 문제가 해결된다. 그 이유는 명사 포함(Noun Incorporation)을 겪은 명사는 격 여파에서 면제되기 때문이다.³²⁾ 둘째, V의 LF-접사적 속성이 만족된다. 왜냐하면 [v [N2] 이-]가 LF의 입력이 되어 사실상 V 전체로 볼 때 실질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³³⁾

이상으로 우리는 ‘이다’ 구문에서 항구적으로 NP2에 격표지가 실현되지 않는 현상 (18b)가 ‘이-’의 의미적인 속성 (18d)와 공범주원리(ECP)를 통해서 도출됨을 증명하였다. 공범주원리가 언어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때, ‘이다’ 구문에서 보이는 이러한 특수한 격 현상은 곧 ‘이다’의 어휘적 특성(그 가운데서도 의미론적인 특성)이 통사부에서 빛을 결과에 다름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³⁴⁾ 35)

- 32) 이러한 생각은 Baker(1988)에 기초한 것이며, 관련하여 김의수(2002b)를 참고하기 바란다.
- 33) 한편, NP1과 SC의 격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된다. NP2의 핵 N2가 V로 핵 부가되면, SC 전체가 [SPEC, IP]로 인상할 수가 없어진다. N2가 남긴 흔적이 N2에 의해 지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로지 NP1만이 [SPEC, IP]로 인상하여 주격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SC 역시 격 여파를 회피하게 된다. 즉, 격 여파 (27)은 음성 내용을 가진 NP만을 그 적용 대상으로 삼는데, NP1과 N2가 모두 빠져나간 SC는 비록 NP이지만 음성 내용을 갖지 않으므로 아예 격 여파 (27)의 적용 대상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혹자는 “철수는 착한 학생이다”를 반례로 제시할지 모른다. 명사 핵의 이동 후에도 ‘착한’이 SC 내부에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그렇더라도 그때의 SC는 결합을 가진 NP(defective NP)에 불과하다. 하위의 NP1 전체와 NP2의 핵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격 여파의 적용 대상이 온전한 NP라면 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34) 고팡주(1994, pp. 54-57)도 ‘이-’의 경동사성과 명사 포함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즉, 그는 예컨대 ‘철수는 학생이다’에서 (i) ‘철수’와 ‘학생’은 각각 ‘이-’가 투사하는 VP의 지정어와 보충어 자리에 위치하고, (ii) ‘학생’은 서술성을 획득하기 위해 ‘이-’에 명사 포함하여 ‘명사+이-’가 비대격 술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iii) 부정문에서 NP2인 ‘학생’은 ‘이-’로 명사 포함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먼저 (i)은 (18a,d)를 어긴다. 또한 (ii)와 (iii)은 부정문에서 NP2의 서술성 획득과 격 허가에 관해 문제를 일으킨다. 즉, 부정문에서 ‘이-’로 명사 포함하지 못한 NP2는 서술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NP1에 의미역을 부여할 수 없다. 또한 긍정문과 달리 부정문에서 NP2가 주격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그는 다만 부정문에서 NP2가 명사 포함되지 않는다는 언급만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문제는 그 이후부터이다. [SPEC, IP]은 이미 NP1이 차지하고 있으

3.3. 의문사와 명사 포함

NP2의 격할당 문제와 관련하여 엄정호(1989, 1993)는 (21)과 같은 ‘이다’ 구문에 서의 의문사 출현을 증거로 NP2에 격이 주어진다고 주장하였다.

- (31) a. 존이 누구입니까? -엄정호(1989, p. 124)
 b. 돌이를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냐? -엄정호(1993, p. 327) -밑줄은 필자
- (32) a. 부테 누고 <월인석보(1459), 21:195>
 b. 얻는 藥이 므스 것고 <월인석보(1459), 21:215> -밑줄은 필자.

그의 주장은, ‘의문사’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는 보편문법의 관점에서 볼 때 격이 주어지는 위치이므로 ‘이다’의 선행 NP에 (주)격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32)와 같은 예가 그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한다. 즉, (32)에서는 (31)과 동일하게 의문사가 출현하였으나 그 경우 ‘이다’ 없이 오직 의문 보조사 ‘고’만 나타나 있으므로 이 경우엔 분명히 격이 부여되지 않는 위치에서도 의문사가 출현한 셈이 되어 엄정호(1989, 1993)의 논증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³⁶⁾ 그러나 엄정호(1989, 1993)의 논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만으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 (31)과 (32)는 보편문법의 차원에서 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의문사의 흔적이 반드시 격을 허가받아야 한다는 것은 언어 보편적이다. 그런데 격을 허가 받는 방법(즉, 격 여과를 회피하는 방법)에 오로지 격을 할당받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어가 허용하는 격 여과 회피 방법은 김의수(1999c, p. 1015, 2002b)에 의하면 총 5가지이다: 명사 포함(Noun Incorporation), 특수조사 부착, 어휘격 허가, 구조격(의존격, 자립격) 허가. (31)과 (32)의 두 예에 ‘구조격 허가’라는 방법이 적용될 수 없음은 이미 논의하였다. 그렇다면 나머지 3가지 가운데 해

므로 더 이상 주격이 부여될 자리는 없다. Default Case를 가정하지 않는 그의 논의에서 더 이상의 설명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주장하는 ‘이다’ 구문의 기저 구조 및 명사 포함의 동기에 대해 수궁할 수 없다.

- 35) 익명의 논평자는 필자의 위와 같은 설명 말고도, 예컨대 ①격 여과와 ②명사 포함, ③‘이다’가 격 할당 능력이 없다는 등의 기제만을 가지고도 동일한 설명을 해 낼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설명은 피상적이기도 현상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특히 위의 설명 기제 가운데 ③은 부르지오의 일반화(Burzio’s generalization)에 비추어 볼 때 ‘이다’가 실질의미와 논항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형식동사라는 점에 강력하게 의지하고 있다. ②의 명사 포함도 ‘이’의 의미론적 의존성 해소를 위한 명사 핵의 이동 때문에 결과된 부수 효과일 뿐이다. 따라서 비록 ①~③을 통한 설명이 비록 필자의 설명과 동일한 효과를 유발한다 해도, 그것은 필자가 행한 본질적인 설명으로부터 도출 가능한 현상적인 설명일 뿐이다.
- 36) 주지하다시피, 중세국어에서는 명사에 직접 ‘보조사’인 ‘고’가 부착됨으로써 설명의문문(wh-의문문)을 만든다(고영근, 1987, p. 292). 따라서 보조사 ‘고’ 앞에 ‘이다’의 ‘이’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는 전혀 없다. 즉, 이 때에는 ‘이다’ 없이도 의문사(구)가 보조사 앞에 출현할 수 있다. 특히 (32a)는 (31a)와 그 통사적 유사성이 매우 깊다. 보조사로부터 격 할당을 기대할 수 없다면, 격이 주어지지 않는 자리에 의문사가 출현하는 것이 되어 (32)는 그의 주장에 대한 명백한 반례가 된다.

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31)은 명사 포합을 통해, 그리고 (32)는 특수 조사(보조사)의 부착을 통해 격이 허가된다고 생각한다.

앞서 우리는 (23)과 같은 구조에서 형식동사 '이'의 어휘적 속성(LF-접사) 때문에 선행 NP2의 핵 N2가 V로 핵 부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결과 NP2는 격을 할당받지 않은 채 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음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소위 명사 포합의 효과인데, 그로 인해 NP2가 격 여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³⁷⁾ 명사 포합의 격 여과 회피 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31)에서 소절 내부의 술어로 기저 생성되는 '누구'가 V로 핵 이동해 가면 그것의 투사인 NP2는 더 이상 음성적인 내용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음성적인 내용이 없는 NP2는 격 여과 (27)에 가시적이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동해 간 명사핵 N2도 (27)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비록 음성 내용을 갖기는 해도 그 자체로는 NP가 아니기 때문이다. 격 여과가 '음성 내용을 가진 NP'에 적용되는 조건이라 했을 때, 핵 이동이 일어나면 남아 있는 NP2나 이동해 간 N2 각각은 음성 내용을 가진 NP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된다. 결국 명사 포합은 하나의 명사구를, 범주만 가지는 NP와 음성적 내용만 가지는 N⁰로 분리시킴으로써 격 여과의 가시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격 여과의 회피는 곧 격 허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의문사 제자리 언어(Wh-in situ Language)인 한국어에서는 의문사가 LF에서 이동할 것인데, 외현적인 명사 포합으로 인해 '누구'는 이미 격 허가를 받은 것이 되어 그것이 LF에서 남기게 되는 흔적은 변항으로서 하자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한편, (32)에서는 의문사(구) '무엇'과 '누'가 의문 보조사를 지니고 있다. 김의수(1999c, 2002b)의 논의에 따라 보조사의 부착이 격 여과 회피(격 허가) 방법 가운데 하나라면 여기서도 의문사(구)는 격을 허가 받은 것이 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결국, '이다' 구문에서의 통사 현상은 (18d)와 같은 '이'의 의미적 속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이러한 '이다'의 통사·의미론이 '이'의 형태·음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4. '이다' 구문의 형태·음운적 특성

4.1. 삭제 혹은 생략의 문제

'이다'의 '이'가 삭제나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용언설이나 접사설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접사설'에서는 이를 근거로

37) Baker(1988)는 명사 포합의 격 여과 회피 효과를 가시성 조건의 측면에서 구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격 여과가 가시성 조건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는 필자는 김의수(2002b)에서 그러한 효과를 격 여과의 정의 자체와 핵 이동이라는 기제만을 통해 해명한 바 있다. 본고 역시 같은 맥락이다.

용언 어간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3) a. ‘이’는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 생략 가능하다. -시정곤(1993)

즉, 어떠한 용언 어간도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 생략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접사설 쪽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를 가지는 바, 그 첫째는 어떠한 파생접사도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 생략이 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의 생략이 음운론적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통사적인 조건에 의해 그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고창수·김원경(1998, pp. 32-33)에서는 “‘이’를 파생접사로 간주함에 있어 다른 파생접사가 이와 같은 생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부류를 상정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다시 다음과 같은 예가 (33a)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증거인 것으로 보고 있다.

(33) b. 철수는 소가 견듯이 다닌다.

c. 철수는 소가 견듯 다닌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3b,c)에서 소위 부사파생접사인 ‘-이’가 생략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 생략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논의는 이승재(1994)이다. 그는 ‘이다’ 구문에서 ‘이’가 생략되는 것은 김완진(1972) 등이 제안한 음운론적 설명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음을 증명하고(p.19), 오히려 ‘이’의 통사적인 조건인 ‘서술성 상실의 여부’와 ‘명사화 여부’가 그 생략의 관건임을 논증하였다.³⁸⁾

접사설에서도 ‘이’가 관형사형 어미를 취하거나 명사형 어미를 취할 경우에 그 생략이 거부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삭제 및 생략 현상을 다만 음운론적인 것으로 돌려 버린 것은 ‘이’가 접사일 것이라는 강한 믿음에 이끌려 그것이 형태음소론적인 교체를 보이는 다른 굴절접사와 비슷한 양상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고창수·김원경, 1998, p. 31) 때문이다.

결국 ‘이’의 생략을 두고 ‘이’를 접사라 간주해서 얻어지는 이득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실질용언으로 취급하는 것은 더더욱 무리이다. 실질용언이 가진 실질의미가 무포로 실현된다고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만 ‘이’가 서술양식을 구현하기 위해 쓰이는 형식동사라는 본고의 입장만이 통사론적으로 조건지워진 ‘이’의 생략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뿐이다.

38) 여기서 그와 관련된 상세한 논의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자세한 것은 이승재(1994)를 참고하기 바란다.

39) 예컨대 시정곤(1993, p. 148)이나 고창수·김원경(1998, p. 32)에서 그러하다.

4.2. '이'의 의미적 의존성과 구개음화

한편, '이'가 구개음화의 환경이 된다는 사실이, 그동안 '이'를 용언 어간으로 보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례가 되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 (34) a. '이'는 구개음화의 환경이 된다. -시정곤(1993)
 b. 이것은 논이고 저것은 밭이다. : 밭?이 → /바치/
 c. 머리에 술 이고 가는 할머니 : 술##이 → /손니/
 -시정곤(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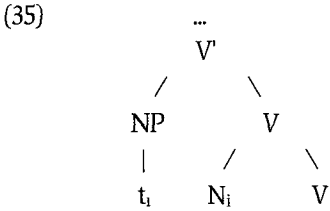
즉, 명사 '밭'에 '이'가 결합하는 경우인 (34b)에서는 조사가 결합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반면, 실질용언으로서의 '이'가 오면 (34c)에서처럼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구개음화가 형태소 경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증거는 '이'를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는 데 불리한 증거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가 접사라는 주장의 논거들 가운데 (34a)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김의수(2000b)의 결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개음화만을 증거로 '이'가 접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순환론에 빠질 위험이 크다.⁴⁰⁾ 따라서 (34a)마저도 좀더 근본적인 다른 원인으로부터 도출된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앞서 3.1절의 초입에서 대형식으로의 대치 가능성을 살펴본 바 있는데, 그러한 논의를 통해 PF가 LF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PF 조각인 대형식으로의 대치 조각은 두 성분이 단일 구성 성분일 것을 요구하는데, 비록 그 두 성분이 D-구조나 S-구조에서는 단일구성 성분이 아니었더라도 LF에서라도 단일구성 성분을 이루면 대치 조각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PF가 LF의 정보를 참조한다는 이러한 주장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즉, Koopman & Sportiche(1986, p. 362,366)에서는 PF에서의 복귀동사(resumptive verbs)의 출현이 ECP 위반을 만회하려는 최후수단임을 주장한 바 있다. ECP가 보통 LF의 허가조건임을 감안할 때 이 역시 PF가 LF의 정보에 민감하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PF 운용이 LF를 참조한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이제 '이다'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이제까지 줄곧 논의해 온 대로 '이'는 의미적으로 공허한 요소이기 때문에 LF에서는 마치 접사처럼 기능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임시로 '이'를 '의미적 접사' 혹은 'LF-접사'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LF에서 '이'가 독자적으로 '의미론적 단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34b)와 (34c)의 LF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40) 동일한 비판은 오미라(1991)와 엄정호(1993)의 '접어설'에도 가해질 수 있다. 특히 엄정호(1993)는 '이'가 구개음화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접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갖는 문제점은 고창수·김원경(1998, pp. 26-29)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34b)와 (34c)의 LF 구조가 V'까지의 형상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LF의 의미 해석 차원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즉, (34b)의 경우에는 '이'가 의미적 허사이기 때문에 N의 핵 부가가 필수적이지만, (34c)에서는 N이 격 여과를 회피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로 이동했을 뿐 그것이 의미론적인 동인으로부터 야기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동일한 핵 부가 조작이 있었지만 (34c)에서의 '술'과 '이'는 반드시 각각의 요소가 독자적인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만일 그 둘이 하나의 의미론적 단어를 이룬다면 소위 투사원리(Projection Principle)가 위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34b)에서는 N과 V가 LF에서 반드시 하나의 의미론적 단어로 해석되어야 한다. 만일 N이 핵 부가 된 이후에도 '이'가 독자적인 존재로 인식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LF에서 비합법적인 요소로 남게 되어 LF의 완전해석원리를 어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엔 투사원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⁴¹⁾ 결국, N의 핵 부가 이후 N과 V가 하나의 의미론적 단어로 해석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LF에서의 완전해석원리에 의해 강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PF에서는 이러한 LF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까? 우리는 좀전에, 비록 외현적인 통사부에서 단일구성 성분이 아니었던 성분들이 LF에서 단일구성 성분이 되면 PF에서도 그들이 단일구성 성분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LF에서의 ECP 위반을 만회하기 위해 PF에서 복귀동사가 출현한다는 것도 언급하였다. 이제 이러한 LF와 PF 간의 관계가 '이다' 구문에서 NP2의 핵 N과 V 사이에도 성립한다고 가정해 보자. 즉, (34c)의 경우 N과 V가 LF에서 개별적인 의미핵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PF에서도 그들이 독자적인 형태음운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하며, 그와 반대로 (34b)의 경우 LF에서 N과 V가 하나의 의미론적 단어로 해석된다는 것이 PF에서도 그들 각각이 독자적인 형태음운핵으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해 보자. 이때 α 가 독자적인 형태음운핵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α 가 음운론적 단어가 아니라는 것, 즉 단어 경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로지 (34b)의 경우에서만 형태소 경계를 조건으로 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PF에서도 '이'를 접사(PF-접

41) 왜냐하면 투사원리는 기본적으로 술어와 그것이 취하는 논항 사이의 관계가 통사부의 처음으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일률적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Haegeman, 1994, p. 73). 형식동사 '이'는 논항을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사원리가 N과의 융합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이동한 N 역시 흔적을 남기고 이동했으므로 그것이 NP1과 주술관계에 놓이는 것이 하등 지장을 받지 않는다.

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독자적으로 음운론적 단어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형식동사 '이-'는 LF에서는 LF-접사로, PF에서는 PF-접사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그러한 접근은 현상적 파악에 머무는 것일 뿐이다. LF와 PF에서 '이-'가 갖는 의존성이 모두 본질적으로 형식동사 '이다'의 의미론적 의존성 (18d)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가 구개음화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가 접사인 증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가 실질의미를 결여한 형식동사라는 것으로부터 연유된 현상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42). 43)

5. '이다'의 부정 문제

'이다'의 부정으로 '아니다'와 '-지 아니하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전자에 대해 살펴보자. '아니다'는 그동안 '이다' 구문과 상관성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끊임없이 관심을 받아 왔다. 이 구문에 관한 논란은 첫째, '아니'의 범주 설정에 관한 문제, 둘째, '아니+이-'의 분석 가능성 여부, 셋째 그것의 구조 기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행 연구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36) a. 명사 '아니' + 통사적 파생접사 '-이-' : 고창수(1985, 1992), 시정곤(1993, 1995)
- b. 부사 '아니' + 용언 '이-' : 엄정호(1989), 서정목(1993), 엄정호(1993)
- c. 별개의 어휘 항목 : 양정석(1986, 1996b), 이현희(1994), 안명철(1995), 이남순(1999)
- d. 명사 '아니' + 어휘적 파생접사 '-이-' : 고창수·김원경(1998)

기존의 연구는 크게 '아니다'를 하나의 굳어진 단어로 보는 입장과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처리하는 관점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36d)는 '아니+이-'를 하나의 단어로

42) 이것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 잘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대학생인 '철수'는 집에서 [아들]이고, 학교에서는 [학생]이고, 아르바이트에 가서는 과의 [선생님]이다. 이때 동일한 '철수'라는 인물이 [학생]과 [선생님]이라는 상호 모순되는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것을 문제삼지 않는다. 그것은 '철수'에게, 그가 존재하는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붙여진 '이름'일 뿐이며, '철수'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의 경우에서도 그것은 형식동사로서 외현적인 통사부에서는 하나의 독자적인 자격을 지니지만 PF와 LF에서만은 임시적으로 '접사' 혹은 '의존어'가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식동사 '이-'의 범주(본질)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43) 이 같은 필자의 주장에 대해 익명의 논평자는 there 구문이 반례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즉, there 역시 LF에서 의미적 의존성을 가지지만 그것은 자신의 관련자(associate) NP와 음운론적 단어를 이루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는 there 구문이 '이다' 구문과 근본적으로 구절구조상 매우 다르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there 구문은 '이다' 구문과 달리 there와 그 관련자 NP가 모두 XP의 위상을 가지며, 그 둘 사이에는 영어의 어순상 반드시 be 동사와 같은 동사류어가 개재할 수밖에 없다. 음운 현상이 PF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 PF에서 인접하지도 않은 there와 그 관련자 NP 사이에 어떠한 음운 현상도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취급한다는 점에서 일단 (36a)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현재의 ‘아니다’를 ‘아니(adv) + 이-(V)’로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이미 엄정호(1989, p. 116)에서 지적한 것처럼 만일 ‘아니다’의 ‘아니’를 명사로 간주한다면 현대국에서 그 경우 외에는 ‘아니’가 명사로서 쓰이는 예가 없다는 점과, 둘째 이미 시정곤(1995, pp. 434-435)에서 지적한 대로 ‘아니다’가 부정극어를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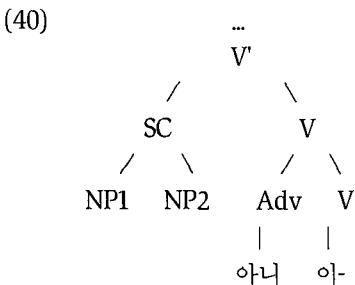
- (37) 가. 아무도 그 사실을 {부인했다, 부인하지 않았다}.
- 나. 아무도 {불행했다, 불행하지 않았다}.
- 다. 아무도 {몰인정했다, 몰인정하지 않았다}.

- (38) 가. 아무도 {못생겼다, 못생기지 않았다}.
- 나. *안된 사람이 아무도 있다. 안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모두 잘되었다)

- (39) 아무도 학생이 아니다

즉, (37)과 (38)에서 보듯이 ‘부인하다, 불행하다, 몰인정하다; 못생기다, 안되다’와 같이 하나의 어휘이거나 어휘부에서 만들어진 단어는 결코 ‘아무도’와 같은 부정극어(NPI)를 허가해 주지 못하지만, (39)의 ‘아니다’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는 ‘아니다’의 ‘아니’가 통사부에서 가시적이며, 따라서 그 때문에 우리는 ‘아니’와 ‘이’를 공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니+이’의 통사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우리는 그 구조를 아래와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⁴⁴⁾



44) 아래 그림에서 필자는 ‘아니다’를 ‘아니+이다’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편의상의 표기에 불과하다. 현대국어에서는 ‘나는 밥을 아니 먹었다, 영희가 아니 예쁘다’가 그다지 자연스럽게 않다. 따라서 현대국어 부정부사의 표준 형태는 ‘안’이 합당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아니’를 사용한 것은 선행연구와의 연계적인 논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여기서는 형식동사 '이'의 의미적 의존성이 부사 '아니'에 의해 항상 극복될 수 있으므로 NP2의 핵 N2의 이동이 불필요해진다.⁴⁵⁾ 또한 이 경우 SC(=NP3)가 어휘 범주에 의해 성분통어되고 있으므로 강명윤(1992)의 무정격(Default Case)의 논의에 따라 SC는 [SPEC, IP]로 이동할 필요 없이 제자리에서 주격을 허가 받게 되며⁴⁶⁾ SC 하위의 NP들도 격 삼투에 의해 모두 격이 허가된다.

다음으로 '지 아니하다'에 관해 살펴보자. 많은 논의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보통의 '이다' 구문은 (5)와 (6a)에서 보이듯 부정의 형식으로 '아니다'를 취하며 장형부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6b,c)처럼 장형부정을 허용하는 예들이 있다.

- (5) a.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
 b. 그 방은 엿망이 아니다.

- (6) a. *철수는 학생이지 않다.
 b. 그 방은 엿망이지 않다.
 c. 영희는 미인이지도 않고 유명인이지도 않다.

이러한 예들은 소위 '속성적 명사'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보통의 '이다' 구문을 이루는 명사들과 구별된다. 그래서 '속성적 명사+이'를 어휘부에서 처리하지는 주장도 있었다(양정석(1986), 안명철(1995), 고창수·김원경(1998) 등).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대로, 이들 역시 통사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단적인 근거로 (6c)의 '미인이다'나 '유명인이다'가 어휘부에서 만들어질 리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다' 구문에서의 장형부정 가능성 여부가 '아니하다'의 고유 속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즉, '아니하다'는 사건(event)을 부정하는 부정어이며, 그 때문에 그것은 '철수가 공부를 한다/철수가 집에 간다'나 '영희가 예쁘다'와 같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사건문을 부정할 수는 있지만, '철수는 학생이다/두루미는 학이다'와 같은 指定이나 동격관계를 나타내는 비사건문은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6b,c) 역시 '엿망, 미인, 유명인'이 관련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그것

45)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소절 재구조화가 일어나야 하므로 LF에서는 N2가 부정 부사 '아니'로 핵 이동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N2와 '아니'는 LF에서 단일 구성을 이루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대형식으로 대치가 가능해진다: "철수는 학생이 아니며, 영희도 그렇다." 이 점과 관련하여 지적을 해 주신 강명윤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46) 강명윤(1992, pp. 26-27)의 무정격(Default Case)의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어떤 명사구가 어휘적 범주에 의해 지배될 경우에만 그것은 무정격을 가질 수 있다." 이때, 지배는 최초 분지절점에 의한 성분통어에 의거한 것이다.

한편, 무정격의 주격을 인정하면, 혹자는 그것과 앞서 '이다' 구문에서 [Spec, IP]에서 주어지는 주격과의 상관성을 궁금해 할 것이다. 전자는 특정한 격 할당자 없이 주어지는 주격이며, 후자는 굴절소에 의해 주어지는 구조격이다. 필자는 국어에 이 두 가지 격 허가 기제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김의수(1999c, 2002b)에서 상론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 포함된 ‘이다’ 구문은 사건문이 되어 ‘아니하다’에 의해 부정될 수 있는 것이다.⁴⁷⁾

6. 요약 및 남은 문제

이상으로 ‘이다’ 구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 몇 가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본고의 결론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41) a. 범주: ‘이다’는 실질동사나 접사가 아닌, 다만 문장의 서술양식 구현을 위해 소용되는 형식동사(dummy verb)일 뿐이며 이 점은 모든 ‘이다’ 구문에서 동일하다.
 b. 의존성: 그러한 ‘이다’의 통사·의미적 특성이 ‘이다’의 형태·음운적 의존성을 유발하여 구개음화와 같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음운 변동의 동기를 제공한다.
 c. 부정: ‘아니다’의 ‘아니’는 적어도 현대국어에서만큼은 부사로서 ‘이다’와 결합하여 통사적 부정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다’ 구문에서의 장형 부정 제약은 ‘아니하다’의 어휘적 속성에 기인한다.

(41a)는 ‘이’가 실질의미나 논항구조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과 그에 선행하는 NP에 적이 할당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가 접사일 수도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 필연적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결론이다. 이러한 결론과 함께, PF가 LF의 정보를 참조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41b)와 같은 설명이 가능했다. 기존의 연구가 ‘이’의 형태·음운적 의존성 그 자체를 주로 증거로만 이용하려 했던 것과 달리 본고에서는 그 현상의 이면에 ‘이다’의 통사·의미론이 숨어 있음을 밝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41c)는 (41a,b)를 바탕으로 ‘이다’의 부정을 탐구해 본 것이다.

본고와 관련하여 추후 계속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동사 부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이다. ‘이다’와 ‘하다’ 말고도 ‘되다’ 등 여러 종류의 동사들이 형식동사로 묵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PF와 LF 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국면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연구는 국어의 문법 기술에서 보이는 잉여성을 많이 제거해 줄 것이다. 셋째, ‘이다’ 구문의 부정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탐구이다. 넷째, ‘이다’ 구문의 통사적 연계성에 대한 연구이다. 작금의 연구는 일부의 논의를 제외하고는 현대국어나 중세국어의 어느 한쪽에서만 ‘이다’ 문제를 다루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이다’에 대해 균형 있고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47) ‘안/아니’와 같은 단형 부정 형식도 나름대로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안 사람답다’, ‘안 공부한다’, ‘안 사랑스럽다’, ‘안 깨끗하다’, ‘안 착하다’, ‘안 사랑하다’, ...

참 고 문 헌

- 강명윤. (1992). 한국어 통사론의 제문제. 한신문화사.
- 강명윤. (1995). 주격 보어에 관한 소고. 생성문법연구 5(2).
- 고광주. (1994). 국어의 비대격 구문 연구: 비대격술어의 논항과 통사적 구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고영근. (198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고영근·남기심. (1983). 국어의 통사·의미론. 탑출판사.
- 고창수. (1985). 어간형성접미사의 설정에 대하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고창수. (1992). 국어의 통사적 어형성. 국어학 22.
- 고창수·김원경. (1998). '이다'는 동사인가? 한성어문학 17.
- 김광해. (1983). 계사론, 난대 이응백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보진재.
- 김귀화. (1994). 국어의 격연구. 한국문화사.
- 김민수. (1983). 신국어학. 일조각.
- 김민수. (1994). '이다' 처리의 논쟁사. 주시경학보 13.
- 김상대. (2001). '이다'와 '아니다'에 대한 대안적 접근. 국어국문학 129.
- 김완진. (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동아문화 11.
- 김원경. (1993). 국어 접사피동의 생성론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김의수. (1997). 국어 격중출 구문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김의수. (1998). 국어의 격 여과 회피 기제에 관하여: 자립격의 정립을 위하여. 제 119차 한국어학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 김의수. (1999a). 핵 이동과 격교체 양상. 한국어학 9.
- 김의수. (1999b). 비분리 명사의 통사론적 실현 양상에 관하여: 대격중출 구문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40. 안암어문학회.
- 김의수. (1999c). 자립격(Default Case)으로서의 대격 가능성 시고: 경동사 '하' 구문을 중심으로. 국어의 격과 조사. 월인.
- 김의수. (2000a). 형식동사 '이다'의 문법. 제34회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어학연구회 발표집.
- 김의수. (2000b). '이다' 논의 재검토.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월인.
- 김의수. (2002a). 언어단위로서의 상당어(相當語) 설정 시고. 형태론 4.1.
- 김의수. (2002b). 국어의 격 허가 기제 연구. 국어학 39.
- 김의수. (2002c). '이다' 재론. 형태론 4(2).
- 김정아. (2001). '아'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국어학 37.
- 남기심. (1986). '~이다' 구문의 통사적 분석. 한불연구 7집.
- 목정수. (1998). 기능동사 '이다' 구성의 쟁점. 언어학 22. 한국언어학회.
- 서정목. (1993). 계사 구문과 그 부정문의 통사 구조에 대하여. 국어사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 성광수. (1976). 「불완전명사+{하(다), 이(다)}」에 대한 생성론적 분석. *어문논집* 17. 고려대 국어국문학회.
- 성기철. (1979). 경험과 추정: ‘-겠-’과 ‘-을 것이-’를 중심으로. *문법연구* 4. (고영근·남기삼(1983, pp. 214-233)에 재록)
- 시정곤. (1992). 통사론의 형태정보와 핵 이동. *국어학* 22.
- 시정곤. (1993). ‘이다’의 ‘-이-’가 접사인 몇 가지 이유. *주시경학보* 11.
- 시정곤. (1994).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국학자료원*.
- 시정곤. (1995). 핵 이동과 ‘-이/답/히/갈-’의 형태·통사론. *생성문법연구* 5(2).
- 안명철. (1995). ‘이’의 문법적 성격 재고찰. *국어학* 25.
- 양정석. (1986). ‘이다’의 의미와 통사. *연세어문학* 19.
- 양정석. (1996a). ‘이다’구문의 의미해석. *동방학자* 91.
- 양정석. (1996b). “이다”구문과 재구조화. *한글* 232.
- 양정석. (2001). ‘이다’의 문법범주와 의미. *국어학* 37.
- 엄정호. (1989). 소위 지정사 구문의 통사구조. *국어학* 18.
- 엄정호. (1993). ‘이다’의 범주 규정. *국어국문학* 110.
- 엄정호. (2000). ‘이다’의 ‘이’는 조사인가? 형태론 2(2).
- 오미라. (1991). The Korean copula and palatalization. *어학연구* 27(4).
- 우순조. (2000). ‘이다’와 ‘아니다’의 상관성: 표지 개념에 의한 분석. *형태론* 2(1).
- 우순조. (2001). ‘이다’의 ‘이’가 조사인 새로운 증거들. *형태론* 3(2).
- 이광정. (1994). ‘이다’ 연구의 사적 고찰. *주시경학보* 13.
- 이남순. (1985). 주격중출문의 통사구조. *국어국문학* 93.
- 이남순. (1999). ‘이다’론. *한국문화* 24.
- 이승재. (1994). ‘-이-’의 삭제와 생략. *주시경학보* 13.
- 이현희. (1994). 계사 ‘(-)이-’에 대한 통시적 고찰. *주시경학보* 13.
- 임홍빈·장소원. (1995).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최기용. (1993). On the so-called copular construction in Korean. *언어학* 15.
- 최기용. (2001). ‘이다’의 ‘-이’는 주격조사이다. *형태론* 3(1).
- 황화상. (1996). 국어 체언 서술어의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濱之上 幸. (1994). 기능문법의 관점에서 본 “-이다”. *주시경학보* 13.
- Baker, M. C. (1988). *Incorpor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Mass.: The MIT Press.
- Grice, H. P. (1975). Logical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ed., New York: Academic Press.
- Grimshaw, J. & A. Mester (1988). Light verbs and θ -Marking. *LI* 19(2).
- Haegeman, L. (1994). *Introduction to Government & Binding Theory*: 2nd edition. Blackwell.

- Higginbotham, J. (1985). On semantics. *LI* 16(4).
- Huang, J. (1982). *Logical Relations in Chinese and the Theory of Grammar*. Mass.: The MIT Press.
- Kitagawa, Y. (1985). Small but clause. *CLS* 21 (part 1).
- Koopman, H. and Sportiche, D. (1986). A note on long extraction in Vata and the ECP. *NLLT* 4.
- Lasnik, H. (1993). *The Minimalist Theory of Syntax: Motivations and Prospects*. Paper presented at The 2nd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Grammar.
- Lyons, J.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 (1977).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well, T. (1981). *Oringins of Phrase Struct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 Stowell, T. (1991). Small clause restructuring. In R. Feidin, ed.,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Generative Grammar*. Mass.: The MIT Press.
- Williams. E. (1981). Argument structure and morphology. *The Linguistic Review* 1(1).

김 의 수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전자텍스트연구소

전자우편 : usk2000@orgio.net

접수일자 : 2002. 5. 27

수정본 접수 : 2002. 7. 24

게재결정 : 2002. 8. 24